

# DuPont, 테플론-프라이팬 관계없다!

## PFOA 유해성 문제로 테팔 주방용품 타격 ... 불소수지 브랜드와 혼동

프랑스의 생활용품 및 가전 브랜드인 <테팔>의 한국판매를 맡고 있는 그룹세브코리아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PFOA와 관련해 자사의 프라이팬을 비롯한 주방용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과불화 화합물의 일종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는 음식이 늘어붙지 않는다는 테플론(Teflon) 프라이팬이나 종이컵 등 1회용 음식용기의 코팅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 최근 미국 등에서 환경오염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 새끼 쥐의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팔의 품질 관리 매니저 Laurent Delange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프랑스 국립산업환경연구소(INERIS), 독일 FABES 연구소, 영국 AGFP 등 유럽 3개국의 국제연구기관에 테팔 코팅 프라이팬의 PFOA 성분 검출 여부를 의뢰한 결과 PFO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uPont도 7월23일 화학물질 PFOA와 테플론 프라이팬의 연관성 여부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프라이팬을 섭씨 2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코팅이 벗겨져도 PFOA는 존재하지 않으며 벗겨진 코팅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다.

DuPont은 “테플론은 DuPont의 불소수지 제품을 명명하는 고유 브랜드일 뿐 불소수지를 뜻하는 일반 명사는 아니며, PFOA는 불소수지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계면활성제 같은 첨가물”이라고 설명했다.

DuPont은 “PFOA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현재 미국 식약청(FDA)이나 환경보호국(EPA)도 비규제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2004년 제3의 독립된 연구기관이 PFOA 잔류 여부와 안전성을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테플론 프라이팬에는 PFOA가 잔류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DuPont은 또 “테플론 독성물질 등과 관련한 보도 때문에 한국의 건설한 중소기업인 프라이팬 제조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환경청(EPA)은 DuPont이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PFOA의 유해성에 대해 불법적으로 은폐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국내에서도 대구가톨릭대의대 양재호 교수가 7월19일 미국 뉴욕대와 공동으로 세계 9개 국가 12개 지역 주민의 혈중 PFOA 잔류농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 부근 시민에게서 PFOA가 가장 많이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화학저널 2004/07/26>